분야별 ▼ 시사·다큐▼

TV 뉴스

뉴스코너 ▼

지역뉴스

Q

**KBS NEWS** 

성능 ' 중에 연골 30시간 단에 연화 선표…연돌 정니 중 사리처 "그가소 ㅂㅎ그여에 ㄸ 하서 치이...그가소 그여 지하우 이에서"



다 3.5%p ↑

이 시각 헤드라인

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… 19대보

ON AIR \*

# 주춤해진 성장률…4% 목표 달성 불투명

입력 2021.10.26 (21:17) | 수정 2021.10.26 (22:03)

 $\Diamond$ < 뉴스 9





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'NLL 월선'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 …"항로 착오로 넘어와"





## 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.1%…19대보 다 4%p ↑
- 2 이 "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" 윤 "투표 율 기대에 못미쳐"
- 3 "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"···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20대 대통령선거…전국 14,464개 투표소서 진행
- 6 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





좁아지는 대출문…'능력만큼 대

#### [앵커]

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

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면서 성장률이 2분기의 절반도 못되는 0.3% 를 기록했습니다.

이러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연간 성장률 4% 달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.

김진호 기자의 보돕니다.

## [리포트]

3분기가 시작된 7월 초부터, 수도권에 있는 PC방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.

업주들은 여름방학 성수기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숨만 깊어졌습니다.

[이진효/PC방 업주: "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일매출의 60~70%가 나오는 시점이란 말 이에요. 그런데 제한 자체가 10시면 7시부터는 손님 유입이 없어요."]

이렇게 서비스업 위주로 3분기 민간소비는 직전 분기보다 감소하며 우리 경제 성장세를 주춤하 게 했습니다.

기업들 역시 세계적 공급망 차질 속에 지갑을 닫았습니다.

자동차 같은 운송장비를 사들이는 설비투자나 토목공사 같은 건설투자가 일제히 줄었습니다.

그나마 3분기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수출입니다.

꾸준한 성장 속에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단 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.

수출과 투자, 소비 등을 종합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.3%.

1분기 1.7%, 2분기 0.8%와 비교해 성장세가 주춤해진 데다 시장이 예상했던 0.6% 수준과도 차이가 났습니다.

연간 성장률 목표치 4% 달성이 쉽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기대 를 걸고 있습니다.

[황상필/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: "(2차 추경) 지원 규모는 34.9조 원 으로 지난번 규모보다 훨 씬 크기 때문에 민간소비 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"]

단계적 일상회복,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는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 질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에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것 으로 보입니다.

KBS 뉴스 김진호입니다.

촬영기자:조은경/영상편집:위강해/그래픽:김석훈



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





뉴스 9 전체보기



오늘의 HOT클릭!























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도…선관위 "모두 유효표"

뽑는 대통령 "투표했어요~"

[20대 대선 인증샷]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…누적 500만 명 넘어서

"경북·강원 산불 났는 데"…'제주들불축제' 어쩌나?

'아이폰SE3'·'아이폰13 그린' 공개…시장 평가는? 울진·삼척 산불 엿새째···전체 진화율 70%

[영상] "특정 후보 연상시킨다?"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,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…"국가부도 임박" 중국 매체,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···"누가 이기든 한중관계··· '정확하고 재미있게'···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

### 지역뉴스

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

뉴스 아카이브

KBS소개 ▲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

KBS N 채널 ▲

KBS WORLD 🔺

KBS /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(여의도동) / 대표전화 02-781-1000 / 기사배열 책임자, 청소년보호책임자 :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/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/ 시청자상담실 02-781-1000 /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(2010년 6월 23일)

Copyright © KBS All Rights Reserved.